

# 국어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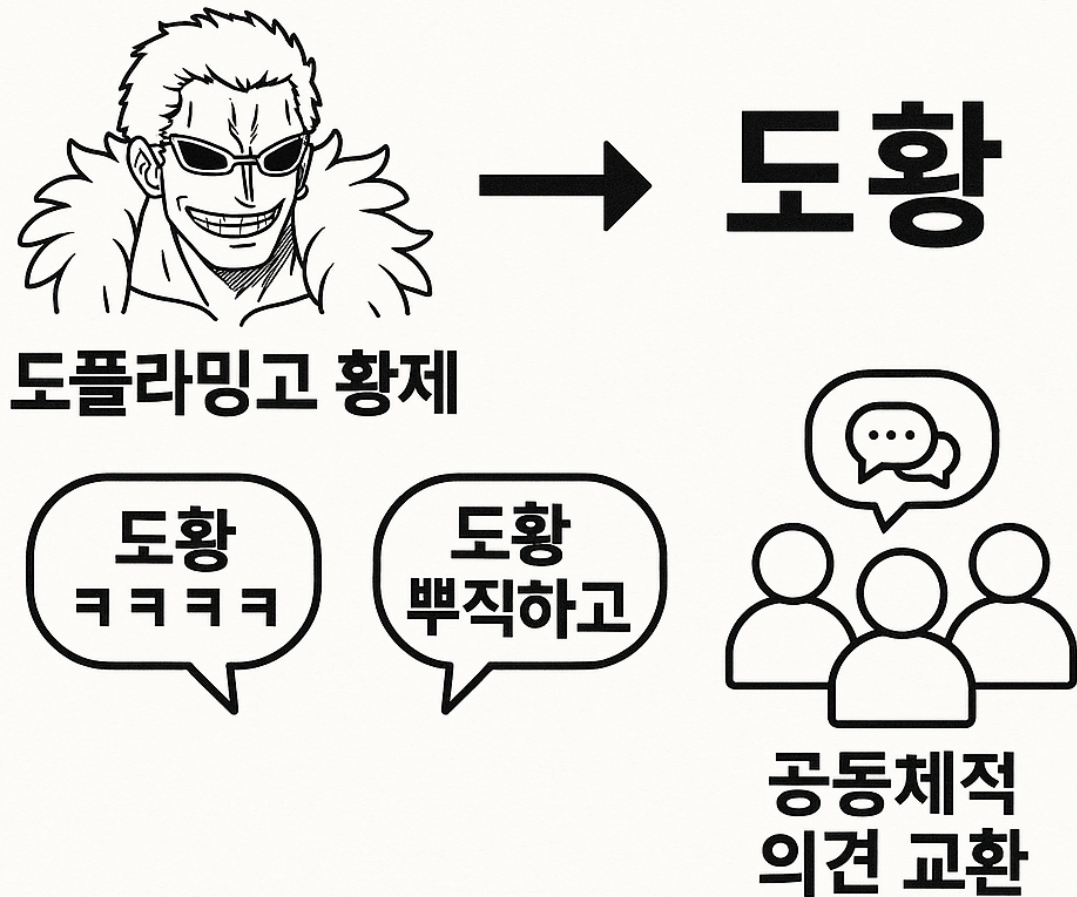
## 문제 생성 조건

- 학습 목표: 학습자는 “도플라밍고 황제”가 어떻게 “도황”으로 축약·변형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문제 유형: 사료(텍스트) 해석형
- 교과 과목: 국어 > 화법과 언어

## 제시문

'도황'은 인기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별명으로, '도플라밍고 황제'라는 표현이 축약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 도플라밍고 황제"가 어떻게 '도황' 으로 축약·변형되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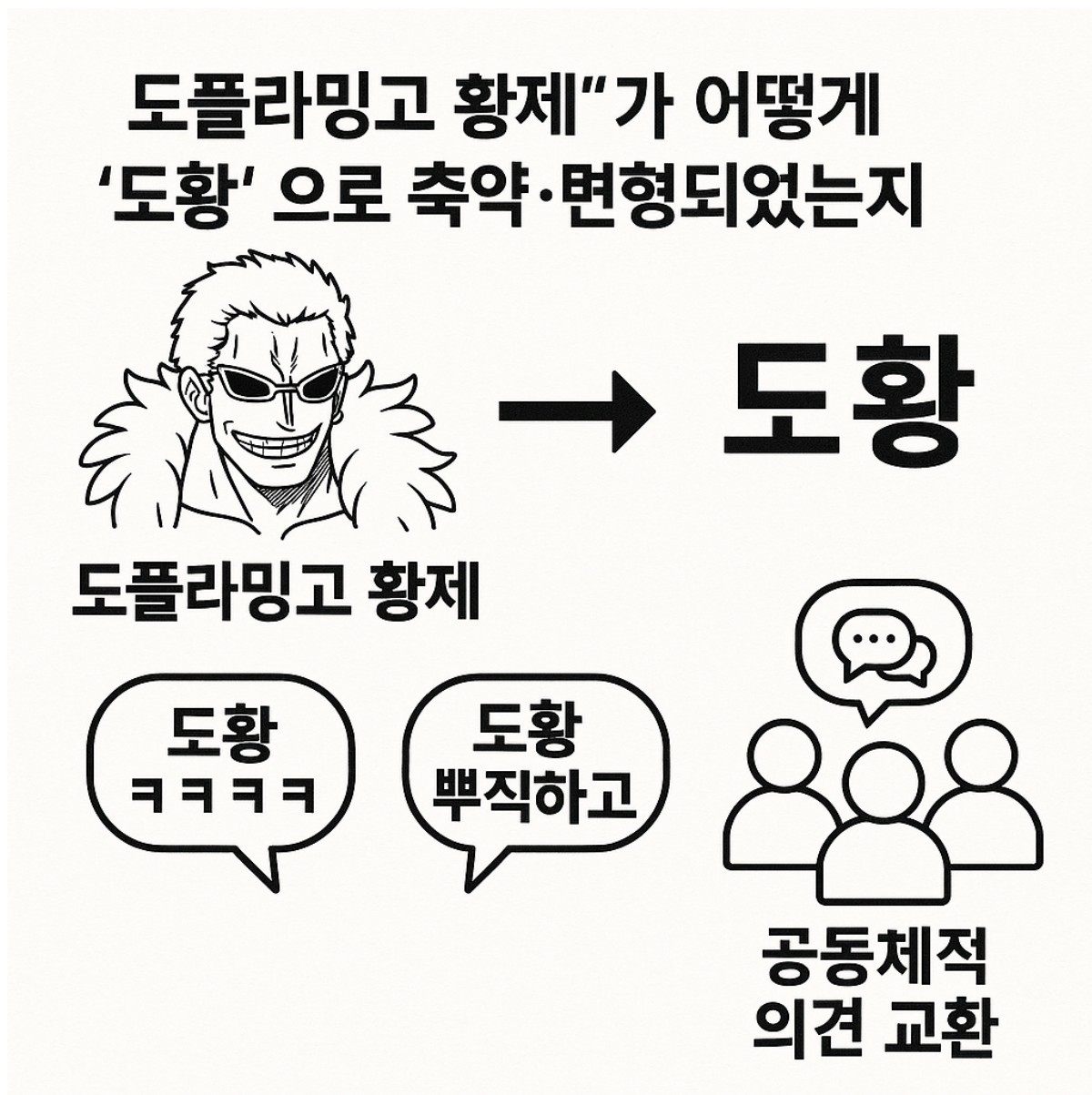


[그림 1]

은 이러한 '도플라밍고 황제'가 '도황'으로 간결하게 줄어드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용어는 주로 원피스 팬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며, 캐릭터에 대한 팬들의 인식 변화와 유머가 결합된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도황'이라는 별명에는 여러 유래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작에서 도플라밍고는 공식적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에는 사황에 버금가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악당으로 팬들 사이에서 '황제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레스로자 편에서 와노쿠니 편으로 스토리가 변경되었다는 루머와 함께, "처음엔 사황급이었는데... 도황이 뿌직하고 똥이나 지렸다"와 같은 농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도플라밍고의 실제 전투력이나 서사적 역할이 팬들의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도황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치네", "쿠마에게 똥통으로 추락한 도황" 등 패배와 몰락을 강조하는 패러디 게시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밈화 현상은 '역할 전환과 기대의 배신'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사황급'으로 설정되었던 캐릭터가 실제 전투에서는 '몰락'하는 연출을 보이면서, 팬들의 실망감과 유머가 결합된 독특한 표현 방식이 된 것입니다. 또한, '도황'은 팬덤 내에서 서로의 게시글, 소감, 패러디를 통해 웃음 소재로 활용되며 '공동체적 유희'의 기능을 합니다.



[그림 1]

하단에 표현된 말풍선과 여러 인물 형상은 '도황'이라는 밈이 팬들 사이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소통의 매개체가 됨을 시사합니다. 이를 통해 원피스 스토리 전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문제

**문항 1. 윗글과 [그림 1]을 바탕으로 할 때, 신조어 '도황'이 형성된 가장 직접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 ① 도플라밍고의 강력한 전투력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 ② 팬 커뮤니티에서 도플라밍고의 이름과 '황제' 칭호를 결합하여 축약한 것이다.
- ③ 원작에서 공식적으로 부여된 '황제' 칭호가 줄어든 형태이다.
- ④ 드레스로자 편 스토리 변경 루머가 확산되면서 생겨난 유머 표현이다.
- ⑤ 도플라밍고의 패배와 몰락을 조롱하기 위해 팬들이 만들어낸 별칭이다.

**문항 2. 윗글에 따르면, '도황'이라는 표현이 '패배와 몰락'을 강조하는 밈으로 확산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원작에서 도플라밍고가 처음부터 약한 캐릭터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 ② 팬들이 도플라밍고의 공식적인 '황제' 칭호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 ③ 사황급으로 기대되었던 도플라밍고의 실제 전투 연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④ 도플라밍고가 다른 사황 캐릭터들보다 먼저 패배했기 때문이다.
- ⑤ 팬덤 내에서 캐릭터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항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보기>의 대화에서 밑줄 친 '도황'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 야, 너 '원피스' 초반에 도플라밍고 나왔을 때 기억나냐?

B: 그럼! 그때 진짜 포스 장난 아니었지.

A: 맞아. 그때는 진짜 **\*\*도황\*\*** ㅋㅋㅋㅋ 진짜 씹간지였는데.

- ① 도플라밍고가 와노쿠니 편에서 전투력이 대폭 하락했다고 놀릴 때
- ② 도플라밍고가 극 후반부에 겪은 패배 장면을 안타까워하며 조롱 섞인 위로를 보낼 때
- ③ 도플라밍고가 사황급의 강력한 악당으로 인식되었던 과거 이미지를 회상할 때
- ④ 도플라밍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천다고 비판할 때
- ⑤ 도플라밍고가 쿠마에게 패배하여 똥통으로 추락했다고 비하할 때

**문항 4. 윗글에서 설명하는 '도황' 밈의 문화적 맥락 중 '공동체적 유희'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팬들이 원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캐릭터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 ② 팬덤 내부에서 특정 캐릭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강화하는 행위이다.
- ③ 팬들끼리 '도황'을 웃음 소재로 삼아 스토리 전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현상이다.
- ④ 캐릭터의 초기 설정과 실제 연출 간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을 해소하기 위한 유머이다.

- ⑤ 원피스 팬덤이 다른 팬덤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유머 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문항 5. [그림 1]은 '도황' 밈의 형성 및 확산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플라밍고 황제'가 '도황'으로 축약되는 과정을 화살표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② '도황'이라는 신조어의 어원적 근거를 캐릭터 이미지와 함께 보여준다.
- ③ 말풍선 속의 '도황 ㅋㅋㅋㅋ'와 '도황 뿌직하고'는 밈의 다양한 사용 양상을 예시한다.
- ④ 하단의 '공동체적 의견 교환' 그림은 밈이 팬덤 내 소통의 매개체임을 나타낸다.
- ⑤ 도플라밍고의 초기 '사황급' 전투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문항 1 해설

정답: ②

#### 해설

윗글과 [그림 1]에 따르면, 신조어 '도황'은 '도플라밍고 황제'라는 표현에서 '도플라밍고'의 '도'와 '황제'의 '황'을 따와 축약된 형태입니다. 즉, 캐릭터의 이름과 그에게 부여된(혹은 팬들이 인식한) 칭호가 결합하여 축약된 것입니다. 따라서 ② '팬 커뮤니티에서 도플라밍고의 이름과 '황제' 칭호를 결합하여 축약한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 ① 도플라밍고의 강력한 전투력 강조는 '황제' 칭호가 붙게 된 배경 중 하나이지만, 직접적인 축약 과정은 아닙니다.
- ③ 원작에서 도플라밍고에게 '황제' 칭호가 공식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윗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드레스로자 편 스토리 변경 루머는 '도황' 밈이 '패배와 몰락'과 연관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도황'이라는 단어 자체의 축약 형성 과정은 아닙니다.
- ⑤ 도플라밍고의 패배와 몰락을 조롱하는 것은 밈의 '사용 양상' 중 하나이며, 단어 형성의 직접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 문항 2 해설

정답: ③

#### 해설

윗글의 '유래와 의미' 및 '밈화의 문화적 맥락' 부분을 보면, '도황'이라는 표현이 '패배와 몰락'을 강조하는 밈으로 확산된 주된 이유는 도플라밍고가 초반에 '사황급'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전투 연출에서는 '몰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의 초기 기대와 실제 전개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과 유머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③ '사황급으로 기대되었던 도플라밍고의 실제 전투 연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 ① 윗글에 따르면 도플라밍고는 '초기에는 사황에 버금가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악당으로 팬들 사이에서 '황제급'으로 인식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어, 처음부터 약한 캐릭터로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 ② 도플라밍고는 공식적으로 '황제'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팬들이 공식 칭호에 반감을 가졌다는 내용은 윗글에 없습니다.
- ④ 다른 사황 캐릭터들보다 먼저 패배했는지에 대한 비교는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팬덤 내에서 비난과 조롱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결과적인 측면이며, '주된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 문항 3 해설

정답: ③

#### 해설

윗글의 '주요 사용 예시' 부분을 보면, "도황 ㅋㅋㅋㅋ 진짜 씹간지네"는 '1부 시절 강렬했던 이미지를 회상할 때'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보기>의 대화에서도 A가 '원피스' 초반 도플라밍고의 '포스'를 언급하며 '그때는 진짜 도황 ㅋㅋㅋㅋ 진짜 씹간지였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강렬했던 이미지를 회상하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③ '도플라밍고가 사황급의 강력한 악당으로 인식되었던 과거 이미지를 회상할 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 ① '와노쿠니 편에서 전투력이 대폭 하락했다고 놀릴 때'는 "도황 뿌직하고 똥이나 지렸다"에 해당하는 사용 예시입니다.
- ② '극 후반부에 겪은 패배 장면을 안타까워하며 조롱 섞인 위로를 보낼 때'는 "도황 진짜 불쌍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용 예시입니다.
- ④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천다고 비판할 때'는 "도황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치네"에 해당하는 사용 예시입니다.
- ⑤ '쿠마에게 패배하여 똥통으로 추락했다고 비하할 때'는 "쿠마에게 똥통으로 추락한 도황"에 해당하는 사용 예시입니다.

### 문항 4 해설

정답: ③

#### 해설

윗글의 '밈화의 문화적 맥락' 중 '공동체적 유희'에 대한 설명을 보면, "팬덤 내에서 서로의 게시글·소감·패러디를 보며 '도황'을 웃음 소재로 삼음으로써, 원피스 스토리 전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집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황' 밈이 팬들 사이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③ '팬들끼리 '도황'을 웃음 소재로 삼아 스토리 전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현상이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 ① 윗글에서 '도황' 밈이 원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② '도황' 밈이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적 유희'는 주로 '웃음 소재'와 '소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 ④ '캐릭터의 초기 설정과 실제 연출 간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을 해소하기 위한 유머'는 '역할 전환과 기대의 배신'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⑤ 윗글에 '도황' 밈이 다른 팬덤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문항 5 해설

정답: ⑤

### 해설

[그림 1]은 '도플라밍고 황제'가 '도황'으로 축약되는 과정, 밈의 구체적인 사용 예시('도황 ㅋㅋㅋㅋ', '도황 뿌직하고'), 그리고 밈이 '공동체적 의견 교환'의 매개체가 됨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림 자체는 도플라밍고의 전투력이 실제로 과장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윗글의 텍스트 설명에서 '역할 전환과 기대의 배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그림의 시각적 요소만으로는 직접적인 비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그림 1] 상단에 '도플라밍고 황제'에서 '도황'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② [그림 1]은 도플라밍고 캐릭터 이미지와 함께 '도플라밍고 황제'라는 어원적 표현을 보여주고, 이것이 '도황'으로 축약됨을 나타냅니다.
- ③ [그림 1] 하단의 두 가지 말풍선은 '도황' 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 ⑤ [그림 1] 하단의 여러 인물 형상과 '공동체적 의견 교환'이라는 문구는 '도황' 밈이 팬덤 내에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